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229호 (2010년 11월 둘째 주)

연구기획조정실 · 관광지식정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 본격 추진	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발표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통계정책 개선 추진	6
[국토해양부]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7
[국토해양부] 서울역서 짐 보내고 빠르게 공항 간다	8
[환경부] 내장산, 한라산 등 5개 국립공원 국제 인증 받았다	9
[문화재청] 『제주 물장오리 오름』 천연기념물 지정	11
[문화재청] 경복궁, 615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개방	12
[인천국제공항] 전 세계 1700여 공항의 롤모델 인정	13
[경기관광공사] 임진각에 DMZ 사진전 개최	14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 전국공항 최초로 전기자동차 활용 및 충전소 설치 가동	14
[서울특별시] 세종벨트 11월 통합패키지 문화예술상품 40여종 티켓 오픈	15
[서울특별시] 서울성곽길(내사산)과 서울둘레길(외사산) 연결됐다	17
[서울특별시] 내년 여름엔 한강공원에서 신용카드로 자전거 빌려 타고 씽씽!	18
[부산광역시] 부산 전통시장 이야기 ‘시장, 그곳에 가면’ 발간	19
[광주광역시] 국내 최대 ‘광주김치타운’ 개관	20
[울산광역시] “울산 지역축제,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	21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DMZ체험여행 지원키로	22
[경기도] 경기와 강원, 관광산업 발전위해 손잡았다	22
[강원도] 2010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개최	24
[충청북도] 충청북도,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유치	24
[전라북도] 익산 KTX역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25
[전라남도] 中 지방정부와 관광교류협약 잇따라	26
[전라남도] 영암F1경주장 11월 주말마다 부릉부릉	26
[경상남도]경남도, 관광홍보 ‘스마트폰’ 시대	27

[경상남도] 거제 계도마을 체험 ‘최우수’	28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 안성리” 에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세요.....	29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미국 주 관광청들의 소셜네트워크 활용	30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미국 인바운드 상승세 전망.....	31
[해외동향][KOTRA] 홍콩, 새로운 의료관광 거점으로 주목.....	31
[해외동향][KOTRA] 일본-미국 간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33
[해외동향][KOTRA] 엑스포 역사 다시 쓴 상하이 엑스포.....	35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의 시공사로 대림산업(주)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하는 한편, 국민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상징거리인 광화문 구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국고 484억원을 투입, 동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건축연면적 9,965㎡의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상징거리 중심축에 위치한 핵심문화공간으로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을 감안한 창의적 건축설계를 위해 건축개념설계안(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지난 10월 29일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계안은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역사와 교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국가상징거리의 새로운 명소로서의 친환경 박물관을 지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오는 2012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건립과 김준환(02-3704-9939) | 등록일 : 2010.11.0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발표

- 금년말까지 외래관광객 이용 가능 숙박시설 1만5천실 공급, 당면 수급 문제 해소
- 민간투자 확대 제도개선을 통해 2012까지 관광호텔 3만실 추가 확충
 - 호텔과 주택 복합 건축 허용, 특별법제정 등 획기적 제도개선 단행
 - 서울시내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 관광진흥개발기금 2천억원 내년 1월 조기 융자집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1월 2일(화) 오전 11시 민간 투자자에게 저렴하게 관광호텔 부지를 공급하는 등 투자여건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개최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2009년 782만 명에서, 2010년 88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0년 10월 현재 서울지역 호텔객실 이용률이 약 90% 수준에 이르러 서울의 관광호텔 객실 부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서울 등 대도시지역은 높은 토지매입지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매우 낮고,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와 제도로 인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서울특별시 2만실, 고양시 등 서울근근에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 관광호텔을 확충하여 관광숙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G20 계기 관광호텔객실 부족문제인 당면현안 해소방안〉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의 심각한 관광호텔객실 부족문제인 당면현안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관광호텔 5개소(531실)가 연내에 오픈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2010.10월~12월, 400억원) 시행과 함께, 2010년 10월 현재 281개소(7,025실)인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이노스텔)을 금년 말까지 100개소(2,500)를 추가 확충하여 총 9,525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 고급펜션, 유스호텔, 한옥체험시설 등 50여 개소 약 5,000실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G20전후기간 가용 숙박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숙박정보 실시간 제공, 가용숙박시설 안내, 온라인 예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 “외래관광객 숙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아울러 서울에 집중된 외국관광객이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고도역사도시(부여, 경주), 계절별 테마형 관광거점(강원 스키, 전주 음식, 제주 올레 등)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한국방문의해(2010~2012) 사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관광호텔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관광호텔 신규 건립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관광호텔이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민간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1)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은(부대시설 제외) 상업지역에 한해 주택과 복합건축이 허용되도록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2) 일정규모(50만㎡) 이상의 수도권 재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유치와 배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인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3) 건축법 등에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호텔을 주거 및 교육환경 저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을 주거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부적합한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4)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시행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부지(일정규모 이상)를 공급하는 경우에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5) 1~3등급 중저가 관광호텔에 한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일반 숙박시설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기로 하였다.
- 6) 관광단지에서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공급받아 관광호텔 등 관광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7) 서울시는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심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을 관광호텔 복합건설 비율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600% 지역은 최고 800%로, 기준용적률인 300%인 지역은 최고 400%로 확대해주고 있으며 일반지역 및 도심부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의 20%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용적률 확대와 함께 호텔건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도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 8)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대상 부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경우 관광호텔을 공공기여시설 범위에 포함하여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해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9)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에서 호텔 등 전략시설을 연면적 20% 이상 설치할 경우 전략시설 도입비율을 적용하여 용적률 250%를 400%까지 허용해 주기로 하였다.
- 10)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관광호텔의 주차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관광호텔 건립 시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 11) 은평뉴타운, 가든5, 마곡지구, 상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관광호텔 부지가 원활히 확보되고 서울역, 용산국제업무지구, 국립보건원 부지, 여의도 SIFC,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 등 공공시설부지 개발 시 관광호텔 부지 확보와 복합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영개발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관광호텔 부지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12)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여 국공유지 등의 매각 특례, 용적률 및 층수높이 완화, 각종 개발 사업에 의하여 공급되는 택지 중 호텔용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조성원가에 매각하거나 장기대부 등 관광숙박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근거가 마련되도록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성공리에 마무리된 F1 코리아그랑프리(영암)를 계기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지역, 내외국인 관광객 수요 급증지역 등을 대상으로 저렴한 토지공급, 건립자금 지원, 세제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대규모 관광숙박단지 조성〉

서울시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 변경지역, 서울의료원, 한국전력 부지 중 한곳을 MICE 복합지구로 지정·개발될 수 있도록 관광복합시설단지 조성을 검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①한국전력부지	②서울의료원	③잠실운동장	④마곡워터프론트
위치	강남, 삼성동 167	강남, 삼성동 171외1	송파, 잠실동 10일원	강서, 마곡지구
면적	79,342㎡	31,656㎡	414,205㎡	790,000㎡
용도	3종일반주거	2종일반주거	자연녹지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기타	2013년 이전	2010년 이전		
위치도				

경기도는 금년 12월 기반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일산 킨텍스 인근인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대화동 일원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에 특급호텔 960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1~3등급) 3,050실 등 총 4,010실이 신규 확충될 수 있도록 호텔부지를 공급하고 특히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부지를 장기임대 또는 공지가가 이하로 공급할 예정이다.

< 고양관광문화단지 사업추진 현황 >

- 위치: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원(일산 킨텍스 인근)
- 면적: 994,756㎡(약 30만평)
- 사업기간: 2004년~2012년
- 주요시설: 관광호텔(4,010실 규모), 테마파크, 상업시설(UEC), 복합시설, 한류문화시설 등
- 공공사업비: 1조440억 원(민간 자체투자 4조8,960억 원별도)
- 시행자: 경기도(수탁기관: 경기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민간의 관광호텔 신규 확충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서울지역에 2만실, 경기지역 1만실 등 총 3만실 이상 관광호텔을 확충하여 외래관광객 1천만 명을 넘어 2천만 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관광진흥과 장영화(02-3704-9754) | 등록일 : 2010.11.0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통계정책 개선 추진

－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통계관리규정 전부개정 및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문화체육관광통계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계품질을 개선하기위한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통계관리규정(훈령)」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통계관리규정은 「통계법」 전부개정 이후 2008년도에 제정되었던 기존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통계의 생산기반구축, 종합관리, 보급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개정 또는 신설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계생산단계에서부터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고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까지 확대하였고, 통계발전 기본계획의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별로 작성되는 통계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 추진 시 통계의 활용과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통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통계작성의 사후관리와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부처 내 관리되는 통계의 품질진단을 강화하며, 각 부서의 통계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 및 통계전문기술지원 상담창구를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통계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본 규정의 개정은 올해 통계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한 것에 이어 2009년도에 수립된 『문화체육관광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를 꾸준히 수행한 결과물이며, 중장기 발전방안의 단계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운 통계관리규정이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생산하는 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이 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통계수요에 따른 통계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통계개발·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정보통계담당관실 조한석(02-3704-9280) | 등록일 : 2010.11.03)

[국토해양부]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 연안보호를 위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 지침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km에서 2009년 5,620km로 1,940km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각각 작성하여 자연해안 목표를 정한 후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 자연해안 관리대상 :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해안사구 등

국토해양부는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실시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개발 및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연해안 현황도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국가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 관리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연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연안관리지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함으로써 자연해안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자연해안의 보호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연경관을 국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자연해안선을 훼손하는 해안도로 등 인공구조물 설치는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만으로 억제하기 어려워,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자연해안을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담당: 연안계획과 신강섭(02-2110-8459) | 등록일 : 2010.11.01)

[국토해양부] 서울역서 짐 보내고 빠르게 공항 간다

- 12. 29일 인천공항철도 서울역~인천공항 전구간 개통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오는 12. 29일 인천공항철도 전구간(서울역~인천공항)을 개통하고,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40~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고, 요금도 5,300원(일반열차 기준, 요금인하 검토 중)으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국할 때 짐은 서울역에서 보내고 몸만 간편하게 공항으로 갈 수 있다.

국토부 및 코레일공항철도는 공항철도 2단계 구간(서울역~김포공항역) 완공을 앞두고 오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수하물처리시스템 시연과 함께 서울역~인천국제공항 58km 전구간에 대한 시승행사를 가졌다.

공항철도 1단계 김포공항~인천공항(37.6km) 구간은 지난 '07.3월부터 운행 중이며, 2단계 서울역~김포공항 구간(20.4km)은 오는 12월 29일 완공하게 돼, 인천공항철도는 '01.4월 첫 삽을 뜬지 10년 만에 전구간 완전 개통을 맞게 됐다.

<서울역~인천공항 43분 시대 개막>

<서울역~검암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추진>

이번 2단계 구간 개통식에 맞춰 새로 들어서는 역은 서울역, 홍대입구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3개역이며, '11.12월에는 공덕역도 개통돼 공항철도에는 1단계 구간의 6개역을 포함하여 총 10개역이 운영된다.

특히 10개역 중 6개역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서울역에서 KTX 등과도 연계되어 지방고객들의 공항길도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역↔검암간 일반열차는 12분에서 6분 간격으로, 서울역↔인천공항간 직통열차는 1시간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시격도 줄어들어 승객들의 이용편의도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2단계 구간 개통을 계기로 일반열차에는 인천시 및 서울시 도시철도와 환승되는 서울역~검암 구간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요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민자사업인 공항철도는 지금까지 도시철도에 비해 높은 별도 운임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울역~검암 운임은 통합환승할인 적용시 기존 3,000원에서 1,400원으로 크게 인하되며 다른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및 버스 등과 환승시 기본요금 할인도 이루어진다.

특히, 운임인하로 인해 인천과 서울도심 간의 통근·통학이 매우 편리해 지고, 서울 도심과 수도권 간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른 교통수단과 공항철도 소요시간 및 비용 비교>

구분		서울역↔인천공항(58Km)		비고
		비용	소요시간	
리무진 버스	일반	10,000원	70분	공항철도 일반 53분, 5,300원
	고급	15,000원	60분	공항철도 직통 43분, 13,300원
택시		67,500원	58분	- 평균 이용요금 : 60,000원 - 신공항하이웨이 톨게이트 : 7,500원
자가용		15,500원	58분	- 평균 유류비 : 8,000원 - 신공항하이웨이 톨게이트 : 7,500원

<서울역에서 탑승수속, 수하물탑승까지 원스톱 서비스>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는 도심공항터미널은 비행기 탑승수속과 수하물탑승을 처리하는 ‘도심속 공항’이다.

탑승된 수화물은 직통열차 수하물칸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역으로 옮겨져 바로 해당 항공기에 실리게 되므로, 이용객은 서울역에서 짐을 부친 후 공항철도를 타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면세점 쇼핑 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편, 코레일공항철도는 열차운행 스케줄에 따른 시운전 중 ‘11.6 ~ ‘12.20 기간 동안 일반시민 대상의 시승행사를 갖기로 해, 일반시민들도 공항철도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 간선철도와 김상수(02-2110-8784) | 등록일 : 2010.11.02)

[환경부] 내장산, 한라산 등 5개 국립공원 국제 인증 받았다

- 5개 국립공원 IUCN 카테고리 등급 변경 인증(V→II)

- 기존 9개소 포함하여 생태계 보호 가치가 있는 국제 인증 국립공원 14개소로 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1일 내장산·변산반도·치악산·가야산·한라산 등 5개 국립공원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IUCN은 6개 카테고리 분류체계 가운데 내장산 등 우리나라 5개 국립공원을 경관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V에서 국제 공인 국립공원을 뜻하는 카테고리 II로 변경 인증했다.

이로써 국제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기존 9곳(설악산, 지리산, 소백산, 오대산, 월악산, 다도해해상, 월출산, 속리산, 주왕산)을 포함하여 모두 14개소에 이르게 되었다.

공단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카테고리 II로 변경 신청하고, 나머지 도심형 국립공원인 북한산과 계룡산, 문화유적 국립공원인 경주 등 5개소는 현행대로 카테고리 V로 유지하여 공원별 특성에 맞게 관리할 계획이다.

※ 그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IUCN 분류상 ‘국립공원(National Park)’이 아니라 ‘육상(해상)경관보호지역(Protected Landscape/Seascape)’에 속했다.

<IUCN의 내장산 국립공원 인증서>



<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분류체계 >

유형	카테고리 명칭	관리 목표
I	a 학술적(엄정)보호구역 (Strict Nature Reserve)	- 엄격한 자연생태계 보호(과학적 연구, 환경 교육 등을 위한 자연환경의 확보) - 교란 최소화, 대중의 접근 제한
	b 원시야생지역 (Wilderness Area)	- 원생지(야생지) 보호 -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이용 허용
II	국립공원 (National Park)	- 생태계 보호와 휴양 - 자연상태/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적, 문화적, 여가 목적의 방문객 이용 관리
III	자연기념물 (Natural monument)	- 자연적 특징(feature) 보전(유일성, 자연성, 대표성 등) - 연구, 교육, 해설, 대중의 감상 기회의 제공
IV	종 및 서식지관리지역 (Habitat /Species Management Area)	- 중요 종, 개체군, 군집 또는 환경의 물리적 특성 보호를 위한 서식처 확보 및 유지(관리 활동을 통한 보전) - 대중에게 야생 관리 및 서식처 특성을 감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한된 지역의 개발
V	육상(해상)경관보호지역 (Protected Landscape/Seascape)	- 육상/해상 경관의 보전과 휴양 - 전통적 토지이용, 건축양식, 사회문화적 표현의 지속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유지 - 지역에 적합한 규모나 유형의 관광, 휴양을 통한 대중 향유 기회 제공
VI	자원 관리보호지역 (Managed Resource Protected Area)	-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 다양성과 기타 자연적 가치를 장기간 보호하고 유지) - 지속가능한 생산 목적을 위한 적합한 관리실행 촉진

지난 2006년 OECD 환경성과평가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보호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카

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공단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립공원 인증과 관리를 위해 IUCN에 카테고리 변경을 신청했고,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왔다.

IUCN은 1978년에 처음으로 10개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체계를 도입하였다가 1994년에 지금의 6개 체계로 변경하였다.

IUCN 카테고리 체계는 지난 2004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계획(UNEP)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세계 자연보호지역 분류를 위한 국제 기준으로 공식 채택되었다.

공단 최종관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인증은 IUCN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등 국제사회의 환경에 대한 관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온 결과이다.”라며, “북한산과 계룡산과 같은 도심형 국립공원, 경주 문화유적형 국립공원,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IUCN 카테고리Ⅱ 국립공원 등 공원별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담당: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외협력실 강희진(02-3279-2800) | 등록일 : 2010.11.03)

[문화재청] 『제주 물장오리 오름』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진우)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제주 물장오리 오름』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17호로 지정했다.

『제주 물장오리 오름』은 제주시 봉개동 해발 937m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라산, 영실기암과 함께 제주도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성지이다.

물장오리 오름 한가운데 점토질 바닥에 물이 고여 생겨난 늪이 있는데,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 제주도를 만든 ‘설문대 할망’이 이곳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풍부하게 고여 있어 제주도에 가뭄이 들면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 등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적 가치가 매우 큰 곳이다. 또한, 제주 특산식물인 새끼노루귀와 산작약 등 희귀한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매, 팔색조가 서식하고, 그 외 다양한 늪지생물이 어우러진 곳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한 제주 물장오리 오름을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유산으로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담당: 천연기념물과 조운영(02-481-4986) | 등록일 : 2010.11.01)

[문화재청] 경복궁, 615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개방

- G20 성공기원 11.9~12일 한시적, 덕수궁도 야간공연
- 창덕궁·창경궁은 임시 휴관(11.10~11일)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역사적인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을 G20 기간 중인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한시적으로 야간 개방한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광화문과 근정전, 경회루에 이르는 권역의 주요동선에 야간 경관조명을 보완하고 야간 관리 인력을 투입(40명)하여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개방한다.

지난 8월 15일 제자리에 복원 개방한 광화문과 정전인 근정전(국보 제223호), 경회루(국보 제224호) 권역 등 경복궁의 주요 공간에 일반인의 야간 출입이 허용된 것은 1395년 경복궁이 세워진 이래 처음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같은 기간동안 G20 기념 야간 국악공연인 ‘천하명인 덕수궁 풍류’를 개최한다.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덕수궁 정관현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에는 성창순(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강정숙(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병창), 이생강(중요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 이춘희(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8명의 공연 등 다양하고 화려한 가(歌)·무(舞)·악(樂)을 선보이게 된다. 본 공연은 별도의 관람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덕수궁 입장(입장료 1,000원)만으로 관람이 가능하다.

야간 입장료는 주간과 동일(경복궁 3000원, 덕수궁 1000원)하며,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경복궁내의 매점과 버들마루 등 편의시설은 연장 운영된다.

한편, 문화재청에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11월 11 ~ 12일 이틀간 창덕궁, 창경궁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담당: 궁능문화재과 이재순 (042-481-4702) | 등록일 : 2010.11.04)

[인천국제공항] 전 세계 1700여 공항의 롤모델 인정

- 인천국제공항, ACI 공항서비스 특별상 수상

UN 자문기구로서 전 세계 공항의 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s Council International)가 세계 공항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격상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인천국제공항만을 위한 공항서비스 특별상(ASQ Special Recognition)을 제정해 3일 수여했다.

이번 수상은 ACI가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세계 1위 달성과 함께 세계 공항의 서비스 기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인천공항만을 위한 특별상을 처음으로 제정해 전 세계 180개국 1700여 회원공항이 참여하는 ACI 세계총회에서 수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시상식은 2일부터 4일까지 버뮤다 해밀턴에서 개최되는 2010년 ACI 세계총회 기간 중 세계 각국 대표 공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욱 사장은 “인천공항 가족 모두가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 차원 높은 공항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천공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은 최첨단 공항시설에 IT기술을 접목하여 빠르고 간편한 출입국 절차를 구현하고,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과 휴식, 상업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롭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계 공항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온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2001년 개항 이후 9년간 인천공항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간 인원만도 전 세계 4천7백여 명에 이르며, 인천공항의 건설과 운영 노하우가 이라크 아르빌공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공항, 필리핀 막탄세부공항 등에 수출되는 등 활발하게 해외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은 다른 공항들이 축적된 건설과 운영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달리 2007년부터 각종 공항운영 과정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개도국 공항 관계자들을 교육한 인원만 700여명에 이른다.

올해만도 ACI 회원공항과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태국, 사모아, 모리셔스, 인도네시아, 네팔 등 개도국의 공항 관계자 280명이 인천공항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높아진 인천공항의 위상을 반영하듯 인천공항공사가 유치한 굵직한 항공 관련 국제회의도 즐비하다. 내년 3월에는 항공노선 개발 분야 세계 최대 회의인 아시아 루트회의(Route Asia Forum)와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교육컨퍼런스가 인천공항에서 열리며, 5월과 6월에는 국제공항협의회(ACI)의 펀드세미나와 아태지역 공항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또한 2014년에는 항공물류 분야의 올림픽 격인 국제항공화물협회(TIACA) 전시회와 국제공항협의회(ACI)의 아태총회 개최가 확정되었으며, 전 세계 180개국 1700여 회원공항이 참여하는 ACI 세계총회도 인천공항 유치가 거의 확정적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국제회의를 세계 공항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항전문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해외 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 담당 : 홍보팀 (032-741-5659) | 등록일 : 2010.11.03)

[경기관광공사] 임진각에 DMZ 사진전 개최

- 분단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생태까지 끌어안은 명소로

경기관광공사(사장 김명수)는 11월 2일(수) 임진각에서 DMZ 생태를 주제로 한 『생명의 땅 DMZ展』을 오픈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DMZ 전문 다큐멘터리리스트인 전영재씨의 DMZ 생태관련 사진 3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그간 임진각에 오면 분단 상황과 전쟁의 상흔을 되돌아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였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 많은 관점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참혹한 전쟁으로 생긴 DMZ에 인간의 발길이 끊기면서 생긴 뜻밖의 선물인 ‘살아있는 자연’에 관한 전시를 통해 임진각은 분단과 대립을 넘어 더 큰 평화와 상생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명소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또한 임진각 일원에 일상속의 평화, 상생과 나눔을 주제로 한 평화누리를 운영, 다양한 문화예술 및 기부가 공존하는 쉼터로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왔다. 임진각 일원이 단순한 안보 관광지가 아닌 평화와 나눔을 지향하는 DMZ 시대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이번 전시는 DMZ 자연에 새겨진 ‘전쟁의 상흔’과 그 안에서 변성한 ‘DMZ의 생명문화재’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상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담당 : 임진각사업운영팀 신영균(031-952-7804) | 등록일 : 2010.11.02)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공항, 전국공항 최초로 전기자동차 활용 및 충전소 설치 가동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G20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제주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성공과 녹색공항 구현을 위하여 3일부터 전국 공항 최초로 제주국제공항의 전기자동차 활용과 충전소 설치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은 탑승동 주차장에 SK에너지, GS칼텍스의 충전기 2대(완속형)를 설치하고, 공항내 CO2 발생차량 대체를 위한 선도적인 모델로 전기자동차 2대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분야(Smart Transport) 컨소시엄 주도기업인 한국전력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13년까지 4년 동안 여객청사 전면 신설 주차장 150㎡ 면적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실증기업은 충전기 10대(급속 2대, 완속 8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의 성능평가와 경제성 분석 등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1월에 개최되는 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제주에서는 ‘Korea Smart Grid Week’가 개최되어, 실증단지 홍보관 관람과 행사 참여를 위해 방문하는 관계 인사들에게 제주국제공항의 녹색공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항공사, 담당 : 양승의 | 등록일 : 2010.11.02)

[서울특별시] 세종벨트 11월 통합패키지 문화예술상품 40여종 티켓 오픈

- 『세종벨트 통합티케팅&인포센터』 세 가지 방식의 티켓개발
 - 당일 잔여공연을 절반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러쉬티켓』
 - 11월1일 새롭게 구성되는 40여종의 ‘세종벨트 통합패키지 문화상품’
 - 세종벨트 인포센터 현장 방문시 구매 가능한 『현장할인 티켓』
- 가을밤 로맨틱한 커플들을 위해 세종벨트가 추천하는 하트 코스
- 「세종벨트 통합티케팅 인포센터」 오픈 100일, 출동 스노우맨, 사춤Day, 난타Day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 주말엔 세종벨트에서 선사하는 해치무대 공연 나들이

<한국에도 브로드웨이형 러쉬티켓제도 도입!>

광화문광장을 중심축으로 도보 통행권 내 위치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30여개 문화공간 문화연합체인 ‘세종벨트’가 뉴욕 브로드웨이 TKTS와 같은 러쉬티켓을 도입한다.

‘러쉬티켓’은 당일공연에 한해 잔여좌석을 파격적으로 할인하여 선착순으로 판매되는 티켓제도이다. 러쉬티켓의 대상은 미리 예매 할 수 없는 해외 방문객과 즉흥적 구매자가 주대상이며,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티켓으로 사전 예매자와는 달리 공연프로그램 다양한 선택 및 좌석 지정의 폭도 다소 제한적이다.

해당공연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세종벨트 인포센터에서만 당일 판매하는 ‘세종벨트 러쉬티켓’은, 지난 10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 정기공연인 <안드레아쉴레니에>를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본격가동을 시작했다.

세종벨트 권역내 공연을 중심으로 세종벨트인포센터에서 오면 50%로 당일 공연을 구매할 수 있으며, 대학로에 라이어, 년센스, 뉴보잉보잉, 김중욱찾기 등 현재 약20여개의 대학로 인기 공연들도 러쉬티켓으로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단, 공연프로그램은 매진 또는 예매 현황에 따라,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되며, 공연 당일 세종벨트홈페이지(www.sejongbelt.com)와 트위터(www.twitter.com/sejongbelt)를 통해 공지 된다.

<11월 세종벨트 문화예술패키지 40여종 출시, 공연+식사+체험 패키지 등 풍성한 즐거움 제공>

통합패키지 문화상품은 세종벨트만의 차별화된 티켓개발 주전략으로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의 TKTS가 러쉬티켓만을 판매했다면, 통합 티켓팅 인포센터에서는 러쉬티켓외에 시민들이 편의와 기호에 따라 맞춰 골라 볼 수 있는 통합패키지 상품이 매달 새롭게 마련되고 있다. 특히 통합패키지 상품은 고객들이 원하는 공연을 쉽게 선택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색조건을 "시간별, 공연별, 가격별, 대상별, 테마별" 선택 합산해, 패키지 맞춤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된 상품 개발이 큰 특징이며, 또한 패키지 티켓은 언제든지 희망하는 날짜에 관람이 가능 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이라 하겠다.

특히, 11월 1일 새롭게 구성되는 40여종의 ‘세종벨트 통합패키지 문화상품’은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다양하고 새로운 공연들과 묶여진 상품을 출시, 외식업체와도 연계하여 공연도 보고, 근사한 외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선패키지상품, 가족과 함께 공연을 보면 최대 4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가족패키지상품 등 더욱 더 풍성해진 문화예술상품을 이용

할 수 있다.

또한 무료로 즐기는 세종벨트가 제안하는 추천코스, 전통공연과 어린이장구체험 패키지, 공연+식사+공연의상체험을 할 수 있는 특선패키지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패키지 상품중에는 올해 연말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어린이공연 등 연말연시 가족과 함께 하는 공연을 함께 묶어 구성 다양한 공연들의 티켓이 오픈되어 함께 미리 예매가 가능하다.

〈현장할인 티켓〉으로 보다 저렴하게 문화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서비스

‘현장할인 티켓’은 세종벨트 인포센터 현장 방문시 구매 할 수 있는 티켓으로 세종벨트 회원기관의 공연·전시 등 다양한 공연이 기간별, 혹은 몇몇 날짜를 지정하여 현장할인으로 제공한다.

〈가을의 정취에 어울리는 세종벨트 11월 추천상품, 하트코스 개발〉

세종벨트에서는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문화예술을 산책할 수 있도록 하트코스를 개발해 선보인다.

하트코스는 세종벨트 통합티케팅 인포센터에서 시작하여 세종로, 효자로, 새문안길, 충정로, 명동로, 청계천으로 해서 다시 세종벨트 통합티케팅 인포센터로 오는 하트모양의 코스이다.

하트코스에서 추천하는 문화상품은 '커플놀이터'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이>'공연, 대림미술관에서 'Inside Paul Smith'전을 관람하고 세종·충무공 이야기 코스로 구성되어있다. 총 이용료는 9만원이지만 약 40%할인된 5만2천원(2인)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가을의 로맨스’, 원더풀 ‘S’, 등 하트코스를 통해 둘러 볼 수 있는 추천 상품들이 함께 출시되며, 문화체험과 도보여행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세종벨트 통합티케팅&인포센터’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11월, 100일 기념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가득〉

세종벨트 통합티케팅 인포센터 운영은 지난 8월 12일 개관 후 하루 평균 약 800여명의 방문객들이 드나들고 있으며, 100일이 되는 11월 19일을 맞아 고객감사카드와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객감사카드는 세종벨트 인포센터에서 티켓을 구매 1회시마다 스탬프를 찍어주어 10회시 세종벨트에서 마련한 기념품 또는 무료 공연, 전시권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100일 기념으로 11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회원사의 날'을 지정하여 스노우맨Day, 사춤Day, 난타Day로 〈스노우맨〉의 프리허그 이벤트, 〈사랑하면 춤을 춰라〉의 관객과 함께 춤추기, 〈난타〉와 함께 타악 이벤트, ‘미니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와 쇼케이스 공연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세종벨트 통합티케팅 인포센터와 함께 제공하는 광화문광장 해치무대 11월 프로그램은 프리뷰 형식의 소규모 공연과, 쇼케이스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함께 열려 쌀쌀해 지는 가을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세종벨트는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티켓팅 서비스를 통해,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종벨트 통합 티켓팅&인포 센터」의 차별화된 역할로 정립시켜 나가며, 내외국인 방문객의 문화예술 관람 확대와 광화문 ‘세종벨트’가 뉴욕의 ‘브로드웨이’, 런던의 ‘웨스트엔드’ 못지않은 보다 차별화된 서울의 TKTS로 명소화하여, 대한민국의 상징적 문화예술 대표브랜드로 거듭 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담당: 문화관광기획관 문화정책과 송영혜(02-2171-2574) | 등록일 : 2010.11.02)

[서울특별시] 서울성곽길(내사산)과 서울둘레길(외사산) 연결됐다

- 북악산 하늘마루~북한산 형제봉사거리 1200m 구간 간벌목으로 정비
- 외룡공원~북한산 둘레길 4.1km 구간이 차도를 건너지 않고 산책로 연결
- 내사산(20km)과 외사산(182km)이 연결되어 걷고 싶은 도시로 첫 발 디딤

북악산과 북한산이 연결됐다. 서울시는 북악스카이웨이길 주변 하늘마루에서 북한산 둘레길 구간인 형제봉 사거리까지 1,200m의 산책로 정비를 지난달 완료함에 따라, 북악산 외룡공원에서 북한산 둘레길까지 총 4.1km(소요시간 1시간 40분)의 산책로(등산로)가 모두 연결됐다고 밝혔다.

북악산에서 북한산 둘레길까지의 전 구간이 차도를 건너지 않는 산책로로 연결됨으로써 내사산 서울성곽길 20km와 외사산 서울둘레길 182km가 직접 연결되는 첫 단추가 끼워진 셈. 서울둘레길이 모두 연결되면 남산에 오른 뒤 북한산을 거쳐 도봉산-수락산이나 서오능-월드컵공원의 외사산까지 마음껏 걷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성곽길(내사산)과 서울둘레길(외사산)을 연결하는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말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단계별 연결에 들어가 2014년까지 완료를 목표하고 있으며, 이 중 서울둘레길(외사산) 북한산 구간은 올해 개장한 북한산둘레길 63.2km(개통구간 44km)를 공동 이용하게 된다.

내사산과 외사산이 차도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구간은 이번에 연결된 북악산 형제봉과 북악산 하늘마루(팔각정휴게소 인근)이 유일하다. 인왕산에서 홍지문-탕춘대암문 구간이나 평창동 일부 구간도 서로 산(녹지)이 맞닿아 있지만 세검정길(4차로)로 단절되어 생태육교를 놓지 않는 한 직접 연결은 어려운 실정이다.

종로구와 성북구가 맞닿은 외룡공원에서 출발해 숙정문과 소위 김신조루트를 잇는 산책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성북구에서 공사를 시행하였고, 작년말 북악스카이웨이를 건너는 하늘교가 준공됨에 따라 종로구 부암동에서 성북구 성북동까지의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와도 서로 연결된 바 있다.

마지막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북한산 형제봉 사거리까지는 연결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원래 국립공원 입장료로 인해 헨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객이 없었던 구간이고, 중간에 군부대가 입지하고 있어 대부분 이용객이 국민대학교로 하산했다가 다시 국립공원으로 진입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북악스카이웨이(하늘마루)~여래사~형제봉 사거리까지의 1,200m 구간을 성북구청에서 정비함으로써 두 산이 편안하게 연결되게 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태풍이나 폭우시 넘어진 나무들을 구청 직영인부들이 잘라 계단식으로 정비하였고, 안내판을 새롭게 설치해 이용에 편의를 더했다. 정비구간 중 기존 산책로 구간이 480m이고, 새로 길을 낸 구간은 720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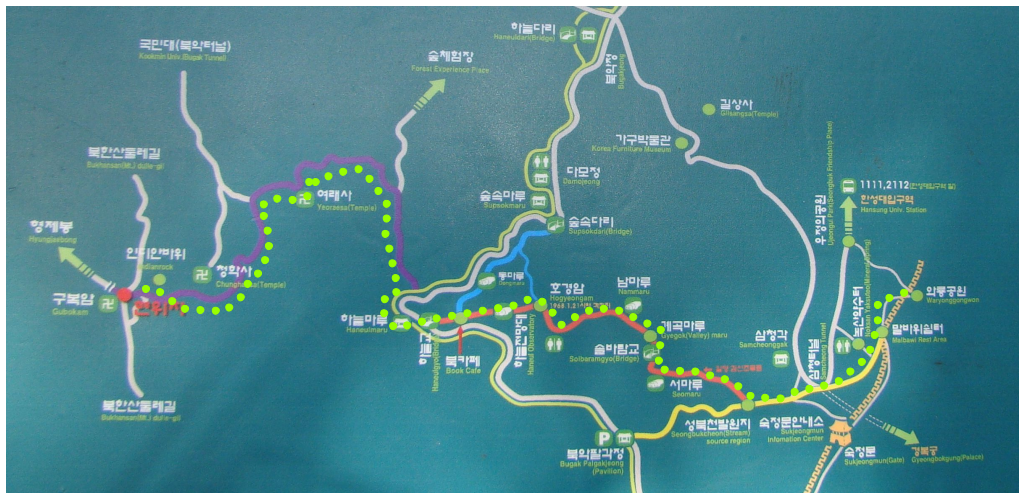
산책로가 모두 연결됨에 따라 도심에서 북한산을 오를 때, 종로구쪽에서는 삼청동 삼청공원에서 숙정문으로 진입하거나 성균관대 후문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와 외룡공원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성북구쪽에서는 혜화문에서부터 성곽길을 걸어 오르거나, 한성대입구역에서 마을버

스로 성북동 우정공원까지 와 도보로 숙정문 진입로로 접근할 수 있다.

금번 산책로 연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울성곽길과 외사산이 연결되면 내사산 20km와 외사산 연결로인 ‘서울둘레길’ 182km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많은 시민들이 서울의 내·외사산을 편안하게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지속적으로 연결해오던 있던 산책로 중 잔여구간 일부를 직영인부들 통해 정비(연결)한 것으로, 향후 시민고객들의 이용현황을 관찰해 세심하게 보강할 예정”이며, “도시를 그물망처럼 걷기 편한 푸른길(그린웨이)로 연결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기 위한 첩경” 이라고 말했다.

<산책로 연결도면(보라색 구간이 새롭게 연결된 1200m 구간)>



(서울특별시, 담당: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온수진(02-2115-7520) | 등록일 : 2010.11.03)

[서울특별시] 내년 여름엔 한강공원에서도 신용카드로 자전거 빌려 타고 뽕뽕!

- 서울시, 11.8월부터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시스템 시범운영 실시
- 신용카드, 핸드폰 등으로 전자결제 가능
- 11월 중순,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 입찰공고 게시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내년 8월 여의도·독섬·반포 3개 한강공원 4개 자전거 대여점에서 신용카드를 대여해 탈 수 있는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은 2000.3.1부터 운영 중인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편의증진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11개 공원 12개소의 대여점 가운데 여의도한강공원 2개소, 반포한강공원 1개소, 독섬한강공원 1개소 등 총 3개 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은 교통목적인 서울시 공공자전거와 달리 기본적으로 여가선용·관광용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적 인증수단(핸드폰, 신용정보기관 인증 등)을 활용하고 ▲다양한 결제수단(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등)을 지원하며 ▲RFID카드를 통해 정산요금을 자동산정하고 ▲대여소 운영현황(대여량, 매출액 등)을 실시간 집계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신분증을 유치하고 대여하던 불편함이 사라지고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급자전거 또한 일부 비치·대여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대여시스템의 운영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강자전거 대여시스템’ 입찰공고는 11월 중순, 서울시청(<http://www.seoul.go.kr>), 한강사업본부(<http://hangang.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입찰참가 자격 및 향후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강사업본부 자전거과(02-3780-0654)로 문의하면 된다.

<대여절차 흐름도>



(서울특별시, 담당: 한강사업본부 공원사업부 조현근 (02-3780-0654) | 등록일 : 2010.11.03)

[부산광역시] 부산 전통시장 이야기 ‘시장, 그곳에 가면’ 발간

- 부산시, 전통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책자 ‘시장, 그곳에 가면’ 11.1 발간
- 시장에 대한 추억 및 역사, 시장 현장의 모습, 달인·명물 등 시장 속 사람이야기 등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야기 서술과 세련된 컬러의 사진 및 일러스트로 구성,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관심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부산의 전통시장 이야기가 책자로 엮어졌다.

부산시는 오랜 세월 지역주민과 함께 물건을 사고파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을 나누어 온 지역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시장, 그곳에 가면’을 11월 1일 발간한다.

이번 책자 발간은 특색 있고 흥미로운 전통시장의 스토리 발굴로 시민관심 유도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상인연합회가 함께 추진한 것으로, ‘시장, 그곳에 가면’ 책자는 시장에 대한 추억 및 역사, 시장 현장의 모습, 달인·명물 등 시장 속 사람이야기 등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이야기 서술과 세련된 컬러의 사진 및 일러스트로 총183페이지로 구성하였다.

책자는 △시장 그리고 가족 △시장, 그 곳 △시장 속 사람들 △시장, 이야기 등 4가지의 테마

로 엮어져, ‘시장 그리고 가족’ 편에는 △돈의 가치가 부쩍 떨어져 버린 현재, 네 가족이 각각 만원짜리 한 장으로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 서로에게 주는 선물을 만들어 보는 ‘만원의 행복’ △가족일기에서 찾는 전통시장의 추억 ‘시장, 세월, 추억’ △아이의 눈으로 본 신기한 시장 이야기 ‘아이의 눈으로’ 등이 소개되고, ‘시장 그 곳’ 편에는 △동래시장 파전, 서면시장 손칼국수, 국제시장 유부전골 등 일부러라도 찾아가 맛봐야 할 것 같은 먹거리들을 게임판으로 소개한 ‘먹자마블’ △국제시장 내 수입품가게들로 이루어진 깡통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장 속 작은 세계’ △영화 ‘친구’, ‘국화꽃향기’, ‘바람’ 속의 매력적인 시장 모습을 소개한 ‘영화 속 시장’ △임진왜란에 대한 가슴 아프면서도 의로운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동래시장, 수영팔도시장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와 전통시장’ 등이 실려 있다.

‘시장 속 사람들’ 편에서는 △만두 굽기의 달인 김귀심씨(수정시장) △회 썰기의 달인 이기재씨(자갈치시장), △떡 썰기의 달인 김우섭씨(반송2동 시장) △자갈치시장의 슈퍼스타 서정완씨 △뛰어난 노래실력으로 더 유명한 박봉창씨(수영팔도시장) 등 사람 사는 세상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달인, 명물 등이 소개된다.

또, ‘이런 사람 꼭 있다’에서는 꼼꼼형, 동정형, 불만형, 재치형 등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웃음을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 편은 △옛날 구포시장에서 험악한 산도적떼를 홀로 물리친 ‘빼빼할배 이야기’ △임진왜란 발발시 지붕 위 기왓장을 뜯어 왜적에게 대항했던 아낙네 이야기(동래시장 옆 송공단) △2009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부산새벽시장 등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한편, 부산시는 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지역 시장상인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부할 예정으로,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 그곳에 가면’ 책자 발간을 계기로 누구나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전통시장에 대한 기억과 추억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깨끗한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로 단장한 현재의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부산광역시, 담당: 경제정책과 이종모(051-888-3045) | 등록일 : 2010.11.01)

[광주광역시] 국내 최대 ‘광주김치타운’ 개관

- 남구 입암동 김치박물관·김치체험관 등 김치 복합 테마파크로

국내 최대규모 김치 복합 테마파크인 광주김치타운이 지난 10월 23일 남구 입암동에 문을 열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23일 강운태 광주시장, 김영진·이정현·장병완 국회의원, 김성훈 세계김치문화축제 추진위원장, 박완수 세계김치연구소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김치타운 개관식을 개최했다.

광주김치타운 조성사업은 시가 남도김치의 세계화와 김치중주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2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04년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지난 6월 전체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개관하게 됐다.

광주김치타운은 지하2층 지상4층의 복합건물로 김치박물관을 비롯해 김치체험장, 김치가공

공장, 영상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 김치관련 집적화 단지로, 지역 김치산업 발전은 물론, 김치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 전반에 대한 학습과 실제체험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성돼 생생한 현장학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광주김치타운 주변에 김치발효 국책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김치타운 일대를 중심으로 한 김치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타운 개관행사에서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6억원 상당의 광주김치를 수출하는 양해각서 체결식이 함께 열렸으며, 관내 홀몸 노인들에게 김치 150kg을 전달하는 ‘사랑의 김치 전달식’도 개최됐다.

(광주광역시, 담당: 생명농업과(062-613-3990) | 등록일 : 2010.11.01)

[울산광역시] “울산 지역축제, 내실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운다”

- 지역축제 내실화방안 마련 ... 21건에서 13건으로 대폭 축소

울산시가 지역 축제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산시는 그간 구·군과의 협의를 거쳐 2010년 기준 21개에 이르는 지역축제를 13건으로 대폭 축소하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실질을 기하여 지역 대표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박맹우 시장이 최근 일부 지역축제가 유사 중복성과 획일적 이벤트성 행사로 인한 비효율을 시정하고, 현 시점에서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행사들은 단계적으로 정리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3일 울산시가 발표한 지역축제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축제 21건 중 7건은 폐지, 공동 개최 1건, 통합 관리 1건으로 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우선 울산시가 주관해 왔던 태화강 물 축제와 남구의 고래축제는 공동개최하기로 결정하였고, 시와 구군 단위에서 각각 개최되었던 정월 대보름행사는 시 주관행사는 폐지하고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군별로는 동구의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대왕암 해맞이 축제·무지개 축제, 북구의 강동해변 축제·강동해변 해맞이 축제, 울주군의 가지산 고로쇠 약수제 등 6건이 전야제 등 축제성 행사를 폐지하고 일반 행사로 전환하여 간소하게 추진된다.

한편 울주군이 추진하는 언양 불고기축제와 봉계 불고기축제는 격년제로 개최하되 1개 축제로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나아가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별로 특화된 대표축제 중심으로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지역축제 자체가 지역문화의 한 형태로서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관광자원 창출이라는 순기능을 해왔다”면서도 “최근 들어 제기된 일부축제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적극 보완함으로써 지역축제가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담당: 공보관실 김혜경 (052-229-3873) | 등록일 : 2010.11.03)

[경기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DMZ체험여행 지원키로

-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주)신세계·DMZ문화포럼과 협약 맺어

경기도와 주식회사 신세계, 경기관광공사,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 (사)DMZ문화포럼은 경기도내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DMZ 체험여행 지원을 위한 협약을 11월 5일(금)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에서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2012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는 캠페인 홍보 및 관리, 감독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은 캠페인의 진행을 위한 후원, 경기관광공사는 ‘경기아이누리-DMZ 체험여행’의 명칭 사용을 허가하고 캠페인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경기다문화사랑연합은 경기도와 함께 도내 다문화 가정의 캠페인 참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협약식에는 파주시 DMZ 내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 어린이 30여 명을 초청, 체험 여행 발대식을 진행하며 당일 놀이동산 등 문화체험 행사를 갖는다.

이 협약으로 (사)DMZ문화포럼은 ‘경기아이누리-DMZ체험여행’의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며, 경기도내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소외계층 어린이들은 기관별 단체 접수나 개인 접수를 통해 누구나 체험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첫 여행은 2010년 12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진행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번 협약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도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DMZ접경지역을 어린이들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담당: 가족여성정책과 (032-8008-2503) | 등록일 : 2010.11.03)

[경기도] 경기도와 강원, 관광산업 발전위해 손잡았다

- 관광상품 공동개발,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등 상호협력 약속

- 아시아 최대 규모 가평 썰매장도 개장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경기도와 강원도가 양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5일 오후 4시 가평군 남이섬 선착장에 마련된 가평 썰매장도 개장식장에서 양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 MOU를 체결하고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마케팅 추진,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측은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지역에 있는 11개 시군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아웃도어익스트림 스포츠, 레저 시설과 인근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 매운탕, 닭갈비 등을 판매하는 맛집 등을 묶은 2박3일 또는 3박4일 정도의 고객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15년 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관광객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규모 국제행

사시 서로의 노하우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기로 하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이번 협약의 실천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자라섬과 남이섬을 연결하는 하늘 길, 짚와이어 개통식도 이어졌다. 경기도, 가평군, (주)남이섬이 총 35억 원을 공동 출자해 가평군의 남이섬 선착장에 조성된 짚와이어는 과거 나무와 나무, 또는 계곡과 계곡사이 또는 평지에 설치된 기둥을 와이어로 연결, 도르래를 타고 활강하는 시설을 익스트림 레저스포츠로 개발한 것으로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시설이다.

가평 짚와이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자 국내 최초 조성되는 것으로 가평군 선착장에 높이 80m의 타워를 중심으로 남이섬까지 940m, 자라섬까지는 710m의 길이로 설치됐다. 현재까지 세계 최대규모는 미국 알래스카의 ICY STRAIT POINT(1,600m)이고, 아시아에서는 러시아(758m)에 설치된 시설이 가장 긴 코스이다. 짚와이어를 타면 최대 90여km의 빠른 속도로 북한강을 가로질러 단 1분 이내에 남이섬과 자라섬에 도착할 수 있다. 또한 높이 80m에서 물리코스트를 타는 짜릿한 스릴감과 함께 자라섬과 남이섬 등 북한강 일대 경관을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평 짚와이어 시설은 국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자라섬 캠핑장, 명지산, 연인산, 아침고요수목원, 브피프랑스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닭갈비, 한우 등 지역의 특별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기회를 제공, 향후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상징물이자 국가 번영의 미래가 달려 있는 DMZ라는 관광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임진강 하구부터 강원도 고성을 잇는 총 연장 248km에 면적은 서울시(605km²)의 1.5배인 907km²이다. 지난 2009년도에 DMZ 일부분 조사 결과 UNESCO가 인정하는 생태의 보고(寶庫)로 확인되었다.

고라니, 독수리, 두루미 등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67종의 동식물과 희귀동식물 146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할 경우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임진각 주변의 국내외 관광객은 이미 연간 600만 명(외국인 100만 명)을 넘어서 국내 최대관광지로 자리매김하였고, 강원도와 손잡고 중앙정부의 PLZ(평화생태공간)사업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개발해 나가면 관광객 1천만 명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담당: 관광진흥과 (032-8008-4722) | 등록일 : 2010.11.03)

[강원도] 2010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개최

강원도(환경관광문화국)는 「2010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가 지난 11. 2(화) ~ 3(수) 1박2일간 횡성군 둔내면 소재 숲체원에서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및 담당공무원 14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11. 3일(수)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 중 17명이 스토리텔링 콘테스트에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결과, “60년간 숨겨진 신비의 땅, 두타연 “을 주제로 발표한 양구군이 창순 문화관광해설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도내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해설능력 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명희 강원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의 스토리텔링 관련 특강 및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수상자 시연과 각종 해설 프로그램 체험 등이 포함되어 도내 해설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강원관광 홍보강화 및 서비스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갑열 강원도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은 최근 관광행태의 변화 가운데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강원도 관광과 문화 이야기 전령사인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본 행사와 같은 스토리텔링 관련 행사개최 및 책자제작 등을 통해 스토리텔링과 관광이 접목된 질 높은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담당: 환경관광문화국 관광마케팅사업본부(033-249-3345) | 등록일 : 2010.11.04)

[충청북도] 충청북도,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 유치

-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충북 민속문화의 우수성 널리 알릴 기회

충청북도가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충북을 비롯한 경기, 강원, 경남 등 4개 도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펼친 끝에 충북도에서 제출한 제안 신청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당당히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2012년에 개최될 ‘충북 민속문화의 해’는 충청북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으로 민속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민속문화를 지역의 관광자원과 산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민속문화 선양 사업이다.

충북도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리적으로는 해안이 접하지 않은 한반도 내륙에 위치한 유일한 지역으로 단양에서부터 영동까지 백두대간이 이어지며, 남한강과 금강이 흐르는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민속문화 또한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경쟁력을 배경으로 ‘진천·음성 혁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문힐 위기에 처한 민속 문화의 조사, 백두대간 및 남한강의 민속문화 발굴, 증원문화권 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속문화 관광인프라 구축, ‘중부내륙 옛 산성군’ 주변과 ‘충주 하늘재 옛길’ 등 도내에 산재한 옛길 주변 민속문화 관광자원화 등을 통하여 충북도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는 4일 충청북도와 국립민속박물관 실무진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고,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계획 심의, 민속박물관의 현지체류 장기 민속문화조사, 실무 협의를 통한 2012년 사업개발 및 토론회 등의 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충북 민속문화의 해’가 개최되는 2012년에는 2월에 선포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지며, 충북 민속문화 학술조사 및 보고서 발간, 전국 민속학자 학술대회 개최,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 민속문화 특별전 개최, 지역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민속축제 한마당 개최, 민속문화 상품개발, 민속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이 열리게 될 계획이다.

4개도의 치열한 경쟁 속에 이 행사를 유치한 주역인 충북도 문화예술과 김기원 과장은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우리 도에서 「충북민속문화의 해」를 개최하게 되어 충북 민속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함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대 충청 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도민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주는 민속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북도, 담당: 문화정책과(043-220-3832) | 등록일 : 2010.11.01)

[전라북도] 익산 KTX역에 복합환승센터 추진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응모한 전라북도(익산역)가 지난 29일 서면심사이후 현장실사를 개별통보 받음으로써 시범사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14개 시·군 및 철도공사가 신청한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은 1차 서면심사에서 8개소를 선정, 현장실사를 할 계획이었다.

앞으로 현장심사(11.3~5일)를 거쳐 순위가 결정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득점 순위에 따라 4곳은 연내, 후순위 4곳은 내년에 각각 계획수립 비용 등에 개소당 10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향후 사업추진시 환승편의시설 등 사업비 50~70%정도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용적률 1.5배 상향, 필수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 수립비용(총 사업비 10%이내), 30개 법률상 인허가 의제처리, 토지수용권,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전라북도, 담당: 녹색교통물류과 대중교통담당 황철호(063-280-4325) | 등록일 : 2010.11.02)

[전라남도]中 지방정부와 관광교류협약 잇따라

- 전남도, 3~5일 상해·절강·강소성과 상호 방문 편의 제공키로

전라남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해·절강·강소성 지방정부와 잇따라 관광교류 협약 체결에 나선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관광교류 협약체결을 위한 사절단(양복완 단장)이 오는 5일까지 3일간 3개 시·성 정부를 방문해 관광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전남도는 이들 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상호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각종 편의 지원, 대규모 국제행사 상호 참가, 관광·문화·스포츠 자원을 활용한 교류협력 등 다양한 관광교류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3개 시·성 지역 여행업계 및 미디어 관계자를 초청,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의 섬·갯벌·해안선·슬로시티 등 비교우위 해양관광자원을 소개하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개최 소개와 향후 중국 관광객의 F1경주장 방문 홍보 및 2012 여수세계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와 참관을 당부할 예정이다.

양복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2020년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1억명으로 예상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남으로의 유치를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 업무협력을 증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각종 박람회 홍보관 운영은 물론 중국 현지 세일즈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현지 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중국시장에서 관광 전남의 이미지를 인식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관광정책과(061-286-5240) | 등록일 : 2010.11.03)

[전라남도] 영암F1경주장 11월 주말마다 부릉부릉

- 자동차경주·신차발표회 등 3주 연속...2만여명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대한민국 역사상 첫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한 영암F1경주장(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이 매 주말마다 자동차 경주와 신차 발표회 등 행사가 연이어 치러지는 등 국민적 명소가 되고 있다.

F1대회조직위원회와 경주장 운영법인 카보(KAVO) 등에 따르면 11월 한 달 간 이 경주장에서 매 주말마다 갖가지 풍성한 행사가 연이어 치러진다.

11월 첫 주말인 6~7일 ‘성우오토모티브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F1대회 이후 영암F1경주장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 대회에는 무려 74대의 국내외 레이싱카들이 참가한다. 출전 경주차 기준으로 올 들어 국내 모터스포츠 최대 규모다. 또 페라리, 포르쉐, BMW, 로터스 등 슈퍼카 130여대가 참가해 시범주행 행사도 갖는다.

둘째주인 13~14일에는 영암F1경주장 최초의 신차 발표회가 예정돼 있다. 국내 간판 메이커인 현대자동차가 신형 액센트 신차 발표를 겸해 현대 클릭과 기아 포르테 쿠페100 여대로 경주(레이스)를 벌이는 ‘스피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아마추어 및 신인 선수(레이서)

들이 주로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국내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주인 20~21일에는 국내 대표 모터스포츠 행사인 ‘CJ티빙닷컴 슈퍼레이스’ 시즌 5번째 대회가 치러진다. 이 대회는 시리즈로 열리는 레이스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대회로 50여대의 경주차와 프로팀들이 참가한다.

이에 따라 11월 한달 간 영암F1경주장 트랙을 달리는 자동차 대수만 350여대에 이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관계자만 3천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초청 관람객과 고객까지 합하면 약 2만여명 이상이 영암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1월 한달 간 무려 3차례의 각기 다른 자동차 관련 행사가 영암F1경주장에 몰릴 듯 몰린 것은 국내 유일의 그레이드A급 국제자동차경주장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한달간 영암F1경주장을 방문하는 주체들이 프로 레이싱팀 및 아마추어 레이서, 자동차동호회, 카메라커 등 자동차문화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고객층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카보 관계자는 “11월중 수많은 외부 인구가 영암과 목포지역으로 유입돼 영암F1경주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질적 입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2011년에는 더욱 많은 대회와 행사가 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11월말 개최 계획을 검토중이던 F3 코리아 슈퍼프리 대회는 내년 시즌으로 연기됐다. 경주장의 일부 가설 관중석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시설물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기간 내에 완료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F3는 메인 그랜드 스탠드와 피트 등 이미 완공된 주요 시설 이외 추가 관중석과 시설이 필요한 국제대회다.

카보는 그러나 F3 대회의 필요성과 국내 드라이버의 출전을 전제로 한 흥행성을 감안, 2011년 이후 개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영암F1경주장은 총 길이 5.615km의 국내 최대 규모로 경주차 성능에 따라 최대시속 32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직선 구간과 고속 코너링 구간, 시가지를 연상시키는 저속 구간 등으로 다른 특징의 코너들을 다양하게 배치해 세계적인 F1 선수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 담당: F1대회조직위원회(061-288-5030) | 등록일 : 2010.11.03)

[경상남도]경남도, 관광홍보 ‘스마트폰’ 시대

- 경남관광 QR시스템 제작·일본인 휴대폰 접근
- 전국 최초 시도...국내·외 관광객 유치 파란불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한국과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경남 관광홍보에 적극 나섰다.

3일 경남도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남 관광, 음식 등을 소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접속용 경남관광 QR코드 모바일웹을 제작, 완료해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남도가 제작한 QR시스템은 한국은 물론 일본인들도 휴대폰으로 접근이 가능토록 한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서 국내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내 서비스를 실시함에 따라 경남관광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QR시스템은 ‘빠른 응답(Quick Response)’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대용량 정보를 담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반응한다는 점, 그 자리에서 상세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스마트폰 보급 속도에 발맞춰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홈페이지에 있는 QR코드나 도내 주요 관광지, 관광안내소, 호텔 등에 부착된 QR코드 스티커에 스마트폰을 인식시키면 스마트폰웹 서비스로 넘어가게 된다.

경남관광 QR코드 모바일웹 주요 수록내용을 보면 도내 36개 관광지 및 경남의 특색 있는 맛(30개)을 설명을 비롯해 ▲관광사진 게재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지도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상세히 게재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관광지 및 맛집 정보는 물론 예약까지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또 방명록도 제작, 여행후기 등도 기록할 수 있어 정보제공은 물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시스템을 선보이게 된다.

경남도는 QR코드 및 모바일사이트 홍보를 위해 모바일 스캔용 스티커 3만장을 제작, 배부하고 경남관광이미지 X베너도 도내 주요관광안내소, 호텔, 여행사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이벤트 개최, 인터넷 사이트 베너게제 등으로 스마트폰용 웹제작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스마트폰 웹접근성 강화를 위해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경남의 걷고 싶은 길, 사찰, 숙박업소, 특산물 등 경남 관광자원 전체에 대해 스마트폰용 모바일관광웹 접근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남관광 파워 블로그 운영, 트위터 등을 활용한 최첨단 관광홍보 마케팅을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남도, 담당: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담당 구경호(055-211-4864) | 등록일 : 2010.11.03)

[경상남도] 거제 계도마을 체험 ‘최우수’

- 경남 3개 마을 전국 우수 어촌체험마을 선정
- 남해 은점마을·통영 연명마을...수상 ‘영예’

거제 계도마을 등 3개 마을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어촌 체험마을로 선정됐다.

4일 경남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제5회 전국 우수 어촌 체험마을 선정 성공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02개 어촌 체험마을 가운데 거제시 계도 어촌 체험마을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거제 쌍근마을에 이어 도내 어촌 체험마을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어촌 체험마을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우수상에는 남해군 은점마을, 장려상은 통영시 연명마을이 각각 선정되는 등 도내 3개 마을이 우수 어촌 체험마을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거제 계도마을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지난 2008년 준공 개장했으며 바다낚시 데크, 가두리낚시터, 낚시체험 바지선 등 바다낚시 체험 공간으로 특화해 운영하고 있다.

계도마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체, 장애인 등 12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지난 9월말까지 1만 명이 넘는 체험객이 방문해 1억2,3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어촌체험 성공마을로 최종 선정됐다.

계도어촌 체험마을은 마을전체 39가구 중 23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해상콘도형 바다낚시 체험을 비롯해 정치망·통발·미더덕·멍게양식 체험과 배젓기, 멸치액젓가공 등의 다양한 어촌체험 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 어촌 체험마을 선정은 어촌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10개 마을이 성공사례 발표를 거쳐 심사위원단이 주민의 참여도 등 8개 평가항목에 대한 현지실사 후 최종 선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007년 하동 대도마을이 우수 체험마을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남해 지족·냉천마을 장려상을, 2008년에는 남해 유포마을 우수상, 거제 쌍근·하동 대도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지난해에는 거제 쌍근마을이 최우수상을, 남해 은점·거제 계도마을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경남도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94억원을 지원해 18개 어촌 체험마을을 조성했으며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운영컨설팅, 사무장 채용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지원하는 등 지난해 도내 어촌 체험마을에 70만 명이 방문, 20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체험마을 시상식은 12월중에 있으며 최우수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과 시상금 6,000만원, 우수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과 3,000만원, 장려상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장상과 1,5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며 수상마을 대표자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주어진다.

(경상남도, 담당: 해양수산과 해양수산 담당 노영환(055-211-3713) | 등록일 : 2010.11.04)

[제주특별자치도] “대정읍 안성리” 에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대정읍 안성리와 민-관 협력다짐을 위하여 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11월 5일 10시에 국가기록원, 제주자치도 관계자 및 대정읍 관내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록사랑마을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된 대정읍 ‘안성리’는 당시 향촌사회의 신분구조와 호구의 구성 및 신분 계층의 변동, 가족구성, 혼인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140여년간(1780~1922) 단절없이 보존된 “호적중초”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제주목사가 3읍(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에 내린 마을운영규칙인 절목 등을 보유하고 있어 제주의 옛 생활상을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안성리’는 중요 마을기록자원의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하여 마을회관 2층을 전시관

으로 조성, ‘호적중초’, ‘절목’ 및 개인소장 19세기말 ‘교지’, ‘칙명’ 등을 전시하여 기념행사 이후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전시관은 추사적거지, 추사기념관 및 대정성지 등 주변 관광지와 인접하여 관광객에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안성리’ 기록사랑마을은 제주도 올레길 코스 및 영어교육도시와 연계한 역사, 문화, 관광, 교육의 중심마을로써 기록문화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간분야 중요 기록물을 발굴하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기록문화 콘텐츠 개발과 기록 활용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기록사랑마을 지정은 제주지역의 중요기록물을 계속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봄으로써 기록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총무과(064-710-6452) | 등록일 : 2010.11.05)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미국 주 관광청들의 소셜네트워크 활용

- 최근 들어 미국의 주 관광 청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여행 패키지 및 여행 팁/가이드 홍보 사례가 늘고 있음
- 뉴햄프셔 주는 미국 서부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타 지역에서는 다소 생소한 “White Mountains dog sledding” (썰매처럼 바퀴 달린 카트에 사람을 태우고 개들이 끌고 가는 형태)을 미국 전역에 홍보하기 위하여 뉴햄프셔 관광 청 캐런 톨린은 페이스북 북에 이를 소개하였는데, 뉴햄프셔의 관광 청은 2009년 7월 페이스북 북을 개설하고 “팬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쿠폰 등을 제공하였으며, 작년 11월에는 1,400 명의 멤버들에 불가했으나 지금은 20,000 명이 팬 사이트에 가입하였음.
- 인디애나 주 관광 청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과 제휴를 맺어 박물관, 식당 등의 장소에서 입장료에 할인을 주거나 쿠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디애나 주의 적극 홍보에 나섰으며, 버지니아주는 트위터를 이용하여 와인 관광을 홍보하였고 최근 national award를 받은 바 있음
- 이러한 사례를 보듯 새로운 관광끼리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매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페이스북 북 과 같은 소셜 네트 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출처 : http://www.msnbc.msn.com/id/39810314/ns/travel-travel_tips/, 10.24

(한국관광공사, 담당: 김옥신(rosablu@mail.knto.or.kr) | 등록일 : 2010.11.01)

[해외동향][한국관광공사] 미국 인바운드 상승세 전망

- 미 상무부는 2010년부터 외국인 미국 방문 숫자가 상승세로 돌아 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9% 증가하고, 2015년까지는 6~9%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
- 2010년부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미국을 방문할 국가들은 중국 (40%), 브라질 (35%), 한국 (35%), 홍콩 (27%), 뉴질랜드 (24%), 그리고 호주 (19%) 순임.
- 한편 지난 7월 미국 방문 한국인수는 작년 동기에 비해 43.9%나 급증한 12만 8,711명인데 이는 월간 방문인원으로는 역대 최고 수치이며, 1-7월까지 한국인 방문객 수는 626,40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0.8%나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100만 여명의 한국인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방미 한국인의 수는 금년에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 미국 방문추이를 보면 아시아 국가에서의 미국 방문은 2010년에는 19%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후 2015년까지 안정적인 소폭 상승세가 예상되며, 아시아 지역 최고이자 전 세계 미국 방문 시장에서 두 번째 규모인 일본은 2010년에 13% 상승세를 보이며 2015년까지 소폭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남아메리카는 2010년 16%의 상승세를 보이며, 2015년에 이르면 5.3 million 방문객 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09년 대비 92% 상승된 수치임.
- 유럽에서의 방문객은 2010년 1% 의 상승세를 보이며 향후 3년까지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미국 방문객 중 최대 비율을 차지하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2010년에 10%와 9%의 상률을 보이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47%와 49%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출처 : http://tinet.ita.doc.gov/tinews/archive/tinews2010/20101026_Forecast.html

(한국관광공사, 담당: 김옥신(rosablu@mail.knto.or.kr) | 등록일 : 2010.11.01)

[해외동향][KOTRA] 홍콩, 새로운 의료관광 거점으로 주목

- 홍콩 정부, 의료관광 촉진위해 사립병원 설립부지 입찰 예정
- 세계적 의료센터들, 아시아 사업확장 위해 홍콩에 투자

□ 배경

○ 새롭게 떠오르는 의료관광산업

- 세계적인 의료관광시장 확대로 많은 나라가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여기며 앞 다퉈 뛰어듦.
- 홍콩 정부는 올 12월 4개의 사립병원 설립부지를 입찰할 계획을 밝히며, 의료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
- 홍콩은 비싼 임대료와 운영비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나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무기로 아시아의 새로운 의료관광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

□ 세계 의료관광시장

○ 의료관광시장은 지금 ‘성장기’

- 미국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규모가 2006년 6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경영컨설팅 전문업체인 딜로이트 컨설팅(Deloitte Consulting)은 2012년 미국인 의료관광객이 160만 명에 달하고, 2017년 미국에서 치료받으려는 의료관광객은 56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봄.
- 또한 의료관광시장은 연간 35%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장되지만 ‘아직은 어리다’고 분석하면서도, 경기침체로 주춤한 의료관광시장 회복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전망

○ 아시아 의료관광시장의 리더, 태국·인도

- 태국은 방문객의 건강검진과 아울러 적합한 메디컬 스파, 1000년 전통의 민간 생활건강법인 타이 마사지 등을 패키지로 상품으로 제공하며 인기를 얻어 왔음.
- 인도는 아유르베다(Ayurveda), 요가 등의 전통의학기술을 치료와 접목해 호평을 받음.
- 최근 인도와 태국은 세계 의료관광시장의 더 큰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인수나 합병의 기회를 찾고 있는데, 홍콩이 주요 타깃 중 하나로 고려됨. 치과검진부터 출산까지 모든 것을 홍콩에서 해결하는 수많은 중국 본토인들이 그 원인임.

□ 홍콩, 의료관광 신거점을 위한 도약

○ 홍콩 정부의 노력

- 홍콩 정부는 의료관광 촉진을 위해 12월 Wong Chuk Hang, Tung Chung, Tai Po, Tseung Kowang 등 4개 지역의 땅을 새로운 사립병원 설립을 위한 장소로 입찰할 예정임. 현재 홍콩 내 사립병원은 13개
- 홍콩 정부는 의료관광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익성 조직인 사립병원에 토지가격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입찰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 신 의료관광 허브로서 평가

- 홍콩의 비싼 땅값과 운영비로 태국이나 인도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더 나은 전문 의료기술과 서비스 제공은 프리미엄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임.
- 검진과 치료를 다른 곳에서 하는 의료관광 트렌드와 홍콩의 지리적 우위를 고려했을 때 홍콩의 경쟁력은 높이 평가됨.
- 중국 본토인들의 끝없는 수요 역시 홍콩 의료관광시장의 밝은 미래를 예견함.
- 홍콩 영자 신문지 South China Morning Post는 홍콩을 아시아 의료관광 강국인 인도와 태국보다 발전된 의료기기 및 기술, 넘쳐나는 중국본토 고객들로 아시아 의료관광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조망

○ 홍콩에 대한 의료관광산업계의 관심

- 세계적인 의료센터들이 아시아 사업확장을 위해 홍콩에 투자를 시도함.
- 인도의 포티스 글로벌 헬스케어사는 홍콩 퀄리티 헬스케어 아시아사를 HK\$ 15억2000만에 인수했고, 세계 최대 의료관광센터인 태국 범령라드 인터내셔널사는 홍콩 애버딘지역의 350개 병실을 보유한 사립병원 인수 계획

□ 시사점

○ 홍콩 의료관광산업의 미래 청신호

- 홍콩의 지리적 우위와 더 좋은 치료를 받길 원하는 의료관광객들의 트렌드에 힘입어, 태국이나 인도보다 발전된 의료기술을 가진 홍콩은 아시아 의료관광의 거점이 될 것임.
- 진정한 의료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선 병원뿐 아니라 관광과 결합한 상품 개발 필요

○ 한국, 새로운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

- 한국은 고도화된 의료기술과 시설을 가지지만 의료관광의 논의가 주로 치료만을 주목적으로 이뤄져 의료관광객들의 니즈를 완벽히 충족시켜주지 못하므로 논의 저변의 확대가 필요
- 한국이 의료관광시장의 리더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한방과 양방을 혼합시키는 등의 테마형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 한류를 이용한 마케팅, 의료관광 통합서비스 구축 등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코트라 홍콩KBC

(KOTRA, 담당: 홍콩KBC 임지현 (H06136@kotra.or.kr) | 등록일 : 2010.10.29)

[해외동향][KOTRA] 일본-미국 간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 일본-미국 정부 오픈스카이 체결

- 지난 10월 25일 일본과 미국의 정부 대표가 모인자리에서 각자 자국 항공사가 노선이나 편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협정(오픈스카이:Open Sky)가 정식으로 체결됐음.
- 일본의 항공·교통분야를 관할하는 국토교통성에서 실시된 이번 체결식에 일본은 국토교통성 마부치 대신이 대표로 나섰으며 미국은 주일 루스 미국대사가 참석했음. 이번 협정 체결은 이미 지난 2009년 12월 경에 합의된 사항으로 체결이 실시된 10월 25일 기준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됐음.

□ 오픈스카이란

- 국제선 항공기가 자국 국경을 넘어가 운항을 하는 경우, 항공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이나 항공편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과 같은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으면서 제약조건이 대대적으로 달라짐.

- 앞으로 일본과 미국의 항공회사는 항공기 발착가능 범위 내에서 노선이나 편수를 국가의 교섭이 없이 민간 기업 차원의 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됐음.
- 협약 체결 후 일본 국토교통성 마부치 대신은 ‘이번 체결은 일본이 더 넓은 세계의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뜻 깊은 행사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미국의 루스 대사는 ‘이번 협정체결로 여객수가 늘어남은 물론 문화교류, 비즈니스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했음.

□ 경쟁력 강화로 동아시아 허브로 성장 목표

- 이번 오픈스카이 협약의 실로 절묘한 타이밍에 이뤄졌는데, 체결이 이뤄지기 며칠 전인 10월 21일은 일본이 3년 만에 걸쳐 준비한 하네다 국제공항을 오픈했음. 한국 인천공항의 영향력에 밀려 사실상 동아시아 허브공항의 자리를 내준 일본 정부로서는 하네다 국제공항 전환과 나리타 확장 등을 통해 반격을 노림.
- 이러한 시점에 일본과 가장 노선이 많은 국가 중 하나인 미국과 오픈스카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아시아 허브 전략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를 증명하는 사례로도 보임.
- 하네다, 나리타 공항 둘다 이번 협약 대상에 포함되며 이번 미국과의 협정에 이어 동아시아 지역과의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임. 앞으로 오픈스카이 협약을 최대한 활용해 일본 정부 및 항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LCC(저비용 항공사) 영업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협정 반기는 일본항공, 전일공

- 일본 양대 항공사인 일본항공과 전일공은 이번 협정 체결을 무척이나 반기는 입장을 표시했는데 일본항공 오오니시 사장은 ‘향후 사업계획수립에 유연성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밝혔으며 전일공 이토 사장은 ‘변화에 강한 사업구조를 실현시킬 수 있다.’ 라고 만족감을 표시했음.
- 한편 전 세계 3대 항공사연합 중의 하나인 원월드에 소속한 일본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리고 스타얼라이언스 연합에 소속된 전일공, 유나이티드, 콘티넨탈 항공은 각각 정부당국에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두 항공사는 이를 계기로 일본-미국 노선의 공동사업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운항 스케줄 조절을 통한 환승 시간 단축 등 이용 편리성 향상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

□ 시사점

- 하네다 국제공항 전환에 이어 2009년 말 협의에 성공하고 이번에 발효에 들어간 오픈스카이 협약 등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관련 움직임이 활발함. 그동안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아왔던 일본의 항공산업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도약을 꿈꾸고 있음.
- 앞으로 세계 교역시장이 FTA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견되는 바와 항공산업은 오픈

스카이 협정 체결 여부와 LCC항공사(저비용항공사)의 향방이 성공과 실패를 나눌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한국인 만큼 이처럼 이례적으로 활발한 전략을 추진하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승객 및 물류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준비가 필요함.

자료원 :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코트라 도쿄KBC 등

(KOTRA, 담당: 도쿄 KBC양지훈(fantasia@kotra.or.kr) | 등록일 : 2010.11.01)

[해외동향][KOTRA] 엑스포 역사 다시 쓴 상하이 엑스포

- 190개국 참가, 7308만 명 참관...역대 최대규모
- 엑스포 계기로 장강삼각주 경제일체화, 녹색산업 급진전 예상

□ 성황리에 끝난 상하이 엑스포

- 지난 5월 1일 개막된 상하이 엑스포가 10월 31일 폐막식을 끝으로 184일간의 대장정을 마침.
- 이번 엑스포에서는 각종 기록이 경신됨.
- 이번 엑스포에는 190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참가기록인 독일 하노버 엑스포의 177개국 참가기록을 경신함.
- 총 관람객 7308만 명으로 그간 최대 관람객수를 기록한 1970년 오사카 엑스포보다 885만 명이 더 관람함.
- 하루평균 관람객수 40만 명, 일일 최고 관람객은 103만 2800명임.



자료원: 제일금융통신

□ 엑스포 부지 40%가 개발용부지로 경매에 부칠 듯

- 상하이 엑스포 부지는 공공시설과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임.
 - ‘1축 4관’ (엑스포 축, 중국관, 엑스포테마관, 엑스포센터와 엑스포문화센터관)을 남겨둔 기타 건축물이 대부분 철거되면 엑스포원구가 상하이시 최대 개발용지가 될 것임.
 - 엑스포가 상하이 시중심 지역에서 개최된 만큼 향후 이 지역 개발을 통한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엑스포장 면적의 약 40%가 개발용부지로 시중에 나올 전망이며, 지가를 m²당 3만5490위안으로 추산하면 토지경매수입이 약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난 9월 8일 엑스포원구 부근의 5만4415m² 규모 황푸장(黃浦江) 연안 E18(9-3) 토지가 홍콩 WHARF 산하 주어광(卓光)에 의해 48억2800만 위안에 매입됨.

□ 관광수입 800억 위안, 장강삼각주 경제일체화 급진전

- 상하이재경대 엑스포경제연구원은 상하이 엑스포로 인한 직접적인 관광수입이 800억 위안을 넘어서고 63만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함.
 - 엑스포 개최로 장강삼각주지역의 고속도로, 철도, 항공, 숙박, 요식업 관련 산업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상하이 엑스포가 상하이 GDP를 5%p 끌어올리고 장강삼각주에 대한 투자를 40~50%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이번 엑스포 준비를 위해 교통인프라가 정비되면서 장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일체화를 가속함.
 - 장강삼각주지역은 산업연관성이 큰 도시가 인근에 위치하면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를 냈었으며, 교통망을 근간으로 한 경제일체화가 급진전되면서 장강삼각주지역의 경제가 한층 급진전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상하이엑스포가 도시를 주제로 하면서 많은 국가관이 도시녹화개념을 국가관에 채용했으며, 이번 상하이엑스포에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녹색전략이 소개됨.
 - 상하이는 장강삼각주 지역의 메갈로폴리스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녹화, 녹색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앞으로 10년간 중국내 녹색건축시장규모가 약 5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보임.
- 상하이 엑스포 관련 직접 투입비용은 엑스포장 건설비용 180억 위안, 운영비용 106억 위안 등 총 286억 위안이며 이외에도 기타 부대비용이 100억 위안 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짐.
 -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도시건설에도 3000억~4000억 위안이 투입됨

□ 숙박 요식업 매출 빠르게 증가

- 엑스포 개최에 힘입어 숙박·요식업 매출 빠르게 증가

- 1~9월 상하이시 사회소비품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했으며, 이중 숙박·요식업 매출액이 501억7700만 위안으로 16.8% 증가함.
- 엑스포 개최기간인 6~9월은 숙박·요식업 매출증가율이 월평균 25%를 넘어섬
- 상하이시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1~9월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한 113억41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3차산업 실행투자금액이 92억 8600만 달러로 전체의 81.9%를 차지함.
- 올 9월 말 기준 상하이에 설립된 다국적기업 본부는 총 292개이며, 외국계 R &D센터는 315개로 상하이는 중국에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임.



자료원: 신화통신

자료원 : 中國經濟網, 中國網, 상하이외국투자촉진센터, 코트라 상하이 KBC 자료 종합

(KOTRA, 담당: 상하이KBC 김명신(c.laire@kotra.or.kr) | 등록일 : 2010.11.02)